

8월의 무더위가 전쟁처럼 지나가는 한국을 기억합니다.
한밤중까지 덮치는 열대야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선교사 가정은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한국과는 반대의 계절인 겨울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추운 날씨에 그저 옷을 꺼입고 이불을 두르고 약 한달간의 이 시기를 힘겹게 보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세례식 (Claudia) Baptism

우리 교회의 여성도 Isabel을 통해서 강한성장로교회에 오게 된 Claudia가 세례문답 과정을 잘 이수한 후,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첫 성찬을 받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품이 신실하여 교회 생활과 주일 아침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배움에 힘쓰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점심을 준비할 때 주방에서 요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감사의 눈물로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을 다짐하는 성도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앞으로도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2. 아버지 날 (Dia dos Pais)



8월 9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일상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는 엄마에게 남겨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해체는 주로 아버지의 마약, 술 중독, 외도와 구타, 그리고 경제적 무책임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좋은 아버지로서의 모델을 제시해 줄 어른의 부재가 늘 아쉽기만 합니다. 그나마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기도 한다면 다행이지만, 도망가 버려 행방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봅니다. 남겨진 그들에게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필요한 생필품으로 마음을 나누며 위로합니다.

저희 교회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남을 갖게 된 Otavio는 저희 교회 성도로 함께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그 가정은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Otavio와 함께 보냅니다. 2년 전 아내를 주님의 품에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 옆에 자녀들이 집을 얻어 아버지를 돌봅니다. 한평생 가정을 지켜내며 돌본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이 가정을 보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이 현장 가운데 가슴 먹먹함도 느껴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성도의 모델이 되어주는 Otavio로 인해 감사하며, 아버지라 불리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과 함께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성경공부와 매일성경통독



매주 화요일 성경공부를 하는 Osvaldo와 Sonia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가 매일 3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리더 그룹과 이 부부 그룹이 매일 성경 읽기를 쉬지 않고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장도 잘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인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방문하여 Osvaldo 부부에게 말씀 나눔과 기도로 함께하며 믿음을 잘 세워 갈 수 있도록 심방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Sonia가 내려주는 설탕 듬뿍 넣은 달달한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곤 하는데, 이번엔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부부에게 복된 시간이 된 듯합니다.

4. 예수행진 (Marcha de Jesus)

8월 마지막 토요일의 예수 복음 행진을 위해 단체 조끼와 깃발도 구입하고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성도들이 음료수와 물, 핫도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깃발과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서 출발하여 교회 밑의 길인 Rua Jeronimo를 걸으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만나는 이들에게 교회에 오기를 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고,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60대 직장인, 흐려진 눈동자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취해 있는 Joao와 그들의 10여 명 친구들, 복음에 관심 없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경계하는 여성 등 Rua Jeronimo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길게 늘어져 있는 이 한길에 보석 같은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겨운 길이지요. 복음 전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주를 향해 있고, 주께서 주의 때에 주의 백성을 부르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5. 선교사 소식 (김성용 선교사)



파라과이 Del Leste 시에서 10여년 간 현지인 사역을 진행중이던 우리 교회 파송 김성용 선교사가 육신의 질고로 응급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현지 성도들과 지인의 도움으로 골든타임을 잘 넘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가슴 압박으로 백혈구를 투여받고 지내는 중, 배에 복수가 차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의 소견으로 한국으로 복귀하여 진료를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한국으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성용 선교사는 GAWPC(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사로 브라질 반석장로교회(차용조 선교사 담임) 파송으로 지금까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GAWPC 브라질 노회 소속 노회원들과 차용조 노회장은 김성용 목사의 송별과 위로의 시간을 가지며, 남미 선교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육신의 질고를 잘 치료받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건축현황

선교 편지를 보내는 3분기에도 건축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당에 보도블록을 깔았고, 철공소에서 덮개를 맞추어 배수로를 덮었습니다. 주방에도 싱크대를 설치하고 수도꼭지도 달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쇠철문을 주문하여 달아야 하고 그릇 수납장도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2주마다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전기시설(한화 1천만 원)과 건물 페인트칠도 재정이 공급되는 대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여성도들이 자원하여 교회에 모여 청소로 먼지를 털어내고 주일 준비를 합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주의 전을 위하여 건축이 마치기까지 재정으로 도 자원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1.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되도록
 - 전기배선공사 및 인건비 (약 1천만 원)
 - 비품비: 티비, 냉장고, 방범용 카메라 8대, 모니터 2대 (약 5백만 원)
 - 영상 및 음향 장비들 (약 6백만 원)
 - 조명 기구(약 2백만 원) 등
2. 교회의 리더들의 영적 성숙과 훈련되도록
3. 선교사 가정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4. 김성용 목사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